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찬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부터 주일 오전 10 시 1 층 친교실에서 교사들과 섬기는 사람들이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 교육부 광고

Sight and Sound Trip for Sunday School and Youth Group

일시: 3 월 25 일 (토)

입장료: Adult \$85

Children \$50

Kids age(3-12) \$31

- PCA(미국장로교) 한인동북노회가 4/18(화)로 연기되었습니다.

- 춘계 부흥사경회

일시: 3 월 31 일(금) - 4 월 2 일(주)

강사: 정민철 목사(뉴하트선교교회)

2017 년 3 월 안내: 이향복 집사

다음 주 기도: 한주루 권사/시편 95 편

이번 주 친교: 백혜옥/황인선 사모

다음 주 친교: 김경순/임수연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3월 12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25 장(통 25 장) 다함께
“면류관 벗어서”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121 편 최성국 집사

찬양(Choir) “내 영혼이 은총입어”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2:11-21 인도자

설교 (Sermon)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민영 목사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함

*찬송 (Hymn) 542 장(통 340 장) 다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3. 5. 주일설교 요약

믿음의 벗 (갈 2:1-10)

벗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축복입니다. 이해관계를 따라 서로 도움이 되기에 어울리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도 믿음의 벗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고 사도가 된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교제의 약수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받기 위해 사도들을 찾아가 우정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인정을 받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 첫머리부터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자기가 받은 복음도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예루살렘의 “소위 유력하다 하는 사도들”의 명성이 자기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명성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사도들은 바울과 자신들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7), 같은 주님으로부터(8),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을 인정하고 친교의 약수를 나눴습니다.

바울의 우정의 주인은 주님이었습니다.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 우정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 인정을 받고 사명을 받았기에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스스로 든든해야, 주님께 얻은 구원과 생명의 확신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사귄 수 있습니다. 우정에서 자기의 존재가치를 찾으려면 우정을 구걸하다 실망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편가르기를 우정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집착과 소유욕과 파괴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주님과 화목해야 친구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스스로와 화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우정을 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얻었다고 독불장군으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들을 찾은 것은 자신의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들의 인정이 없으면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독불장군식의 독선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명, 진리를 가졌다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연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며 모든 육체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벗되십니다. 억지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라고 하십니다(요 15:15). 먼 곳에서 오셔서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결코 버리지 않고, 아무도 몰라줘도 나를 알아주시고 귀하게 대하시는 참 벗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스스로 든든할 때 우리는 서로 벗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칭찬과 인정과 총애를 구걸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스스로 든든하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낮은 자로 섬겨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고 당장 이익이 되고 수준이 맞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벗이기에 모두를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도 영향을 발휘하고 교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하는 연합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로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벗되기를 소원합니다. 든든한 믿음의 벗들을 많이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3/19) 설교: 시작한대로 마치라(갈 3:1-14)